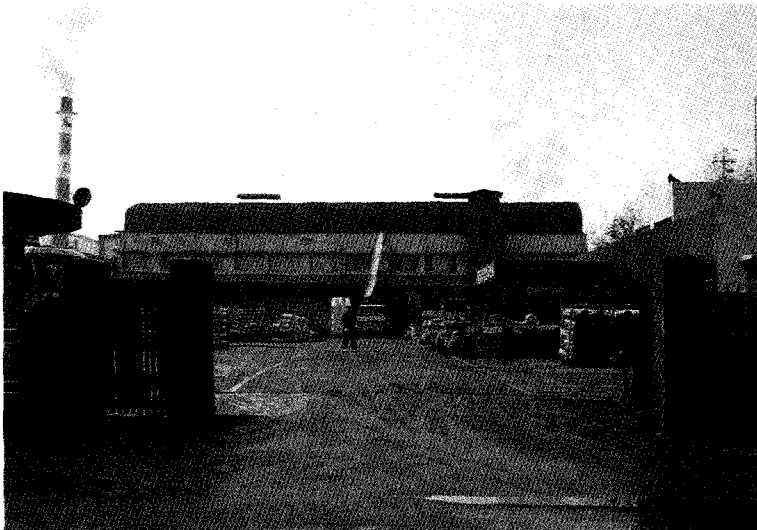


보성중전기(주)

21세기를 지향한 초일류 중전기기 기업으로

보성중전기(주)는 1970.11.21 창립하여 10여명의 종업원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캐치홀더, 금구류 등을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하는 업체로 영세성을 면하지 못했으나, 1978.7.1 현 대표이사인 임도수 사장이 인수하여 구로동을 거쳐, 1980년도 반월공단의 현재 1공장에 이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80년대 농어촌 전화사업이 계속되면서 전화사업에 필요한 자재 공급은 물론 그중 취약했던 地中配線資材를 계속 개발하여 지중선 분야에 획기적인 자재들을 생산하여 당시 붐이 일고 있던 신도시 개발의 모든 전기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데 있어 이를 독자적으로 생산 공급하였다.



▲ 제 1 공장 전경

지중배선이 투입된 것은 얼마 안되었지만 도시 미관, 토지이용 효율극대화, 전기사고 방지 등 그 효과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성중전기(주)가 그 일을 담당했다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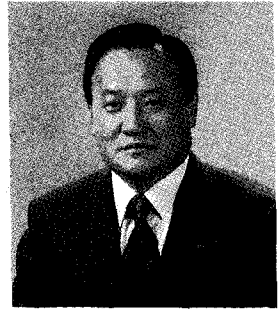
또한, 철탑·전주를 세울 수 없는 곳에 사용되는 조립식 강관전주, 낙뢰 방지용 가공지선지지대 등도 최초로 개발하여 送·變·配電 분야 발전에도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한다.

업체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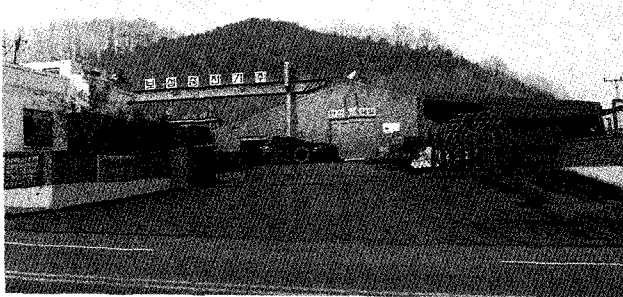
꾸준히 전기업계에서 노력한 결과 1990년도 '17회 상공인의 날'에는 산업포장을 수상하여 창립 20여년만에 명실공히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로서 자리를 잡았다.

1991년도부터 철구, 금구류 제품의 발전성에 한계를 느끼고 스위치, 차단기, 개폐기류의 중전기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부설연구소 설립, 제3공장 인수 등 중소기업으로서는 힘에 벅찬 투자를 하면서 사업전환을 시도했다. 전기자재를 생산하는 메이커로서 중전기제품 생산을 해야 명실공히 전기업계에 선두주자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1991년 11월에는 회사 상호를 보성중전기(주)로 변경하여 본격적으로 중전기 메이커로서의 기반을 다져나가기 시작했다.



▲ 임도수 사장



▲ 제 3 공장 전경

보성중전기는 비록 중전기업계에 뛰어들 것이 늦은 감은 있지만 ASS, COS, SF⁶ 가스 개폐기, G.C.B, 전선퓨즈 등의 제품들이 보성의 제품이면 믿을 수 있고 안심하고 쓸 수 있으며 24시간 항상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A/S로 정평이 나 있어 기존 중전기전문 메이커들이 제일의 경쟁상대로 경계의 시선을 늦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991년 12월에 용융아연도금의 KS표시허가 승인을 위시하여 1993년 5월에는 SF⁶

가스절연 부하개폐기에 대한 KS표시허가 승인을 얻는 등 각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동년 11월에는 전국 품질기술 분임조 경진대회에서 금상(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1994년 8월에는 ISO 9002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21세기를 지향하는 중전기 메이커로서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 생산 품 목 ⊕

특히, G.C.B 등은 국내 최초로 개발, 단독 납품하고 있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사고 있다. 일본 김포전기와 기술 제휴를 하여 생산한 전선퓨즈는

종 류	품 목
전기 보호 장치	GCB(Gas Circuit Breaker), 전선퓨즈, 인류크램프커버, 부상단자커버, SF ₆ 가스절연부하개폐기, ASS, COS, P/F
송·배전 금구	강관전주, 가공지선지대, 완금
지중선 공사자재	앵글서포트, 사다리, 행거, 크리트, 접속제
철구조물	송전철탑, 수전철구
용융아연도금	

중전 캐치홀더의 불편함, 위험요소를 완전제거한 최신제품으로써 국내에서 선두 개발했던 제품인데 1995년부터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에 역수출을 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전기제품도 일본에 수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심어준 계기가 되기도 하고, 정부 유관기관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보성중전기(주)는 또한 모범적인 노사화합 사업장으로서 노사협조 우수업체로 정평이 나있음은 물론 경기도지사로부터의 노사화합 증진 공로표창을 위시하여 일찍이 1983년에는 모범

납세자 표창(중부지방 국세청), 1985년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한 유망 중소기업 선정과 경기도지사의 공장새마을운동 우수업체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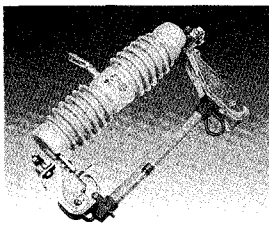
▲ 500 Ton 프레스

또한 직원의 복지제도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어 사원기숙사를 비롯한 사원아파트, 사원임대주택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근로의식 함양과 노사일체감 조성 등을 위해 사원자녀 학자금 지급, 그리고 모범사원 해외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어, 중소기업에서는 보기 드물게 직원복지에 힘쓰는 면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표이사인 임도수 사장은 지난 '89년부터 6년간 전국에 500여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의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서로의 이해가 상반되는 회원사들의 단합과 공동이익을 위하여 헌신하기도 하였다.

특히, 회원사들의 숙원인 연수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을 설득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그 기초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특유의 추진력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간 보성중전기가 성장해 오면서 계속 승승장구만을 한 것은 아니다. 1984년도에는 뜻하지 않은 부도를 맞아 절대절명의 회사 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호트러지지 않는 종업원 및 신용과 의리로써 대해 온 대인관계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대출을 해 주었고, 거래처에서도 오히려 자진하여 수금을 연기하고, 친구나 선배들은 정기적금을 해약하여 지원하는 등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그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직원들의 급여를 한번도 지연시키지 않고 경영하였다.



▲ 컷아웃 스위치(C.O.S)

임수도 사장은 그때의 고마움을 지금도 간직하고 회사경영의 지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전기업계는 전기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제품 및 기술개발업체에 대한 우선권을 주어 신제품 개발업체의 권익을 보호하여 개발에 대한 의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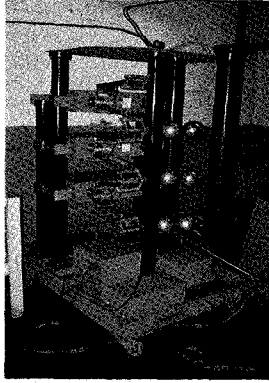
을 증진시키고, 중소기업의 난립으로 인한 경쟁력약화를 방지하고, 모방보다는 독자적인 개발에 치중하여 WTO 경쟁체의 자구책을 마련해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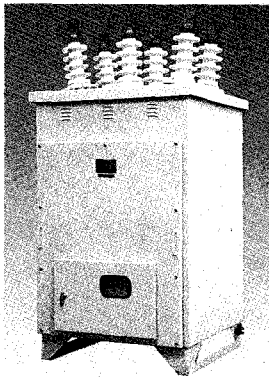
▲ 부분방전 시험기

업체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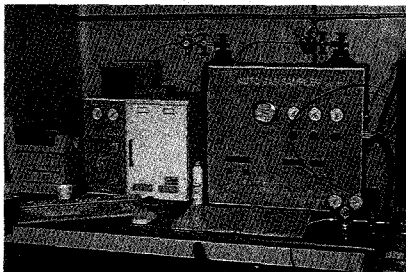
《특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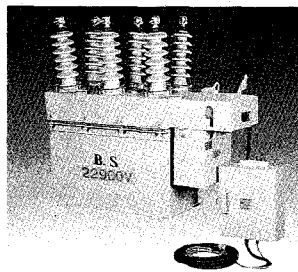
▲ 충격파 시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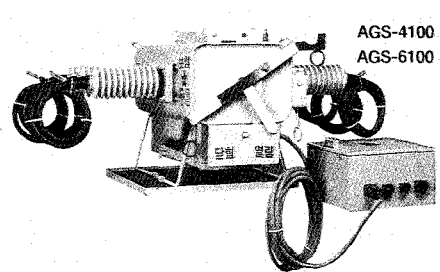
▲ 25.8 kW 옥외용 가스차단기 (G.C.B)



▲ Gas 측정기



▲ 고장구간 자동 개폐기 (A.S.S)



▲ 25.8kV 가스절연부하 개폐기

1. 공장등급 획득 [제1공장, 제2공장]
 - 1) 획득일자 : 1990. 3. 21 (도급), 1993. 11. 15 (COS)
 - 2) 획득동기
 - 양질의 전기공급을 위한 우수한 자재생산
 - 불량품 감소를 통한 원가절감
 - 품질보증체제 확립
 - 3) 획득 부대효과
 - 자체시험 및 시험성적서발행 능력보유(공인기관 인증시험면제)
 - 전사원 자부심 및 책임감 부여
 - 영업활동 확대
 2. K.S 획득 : 용융아연도금(1991. 12. 30), SF₆가스절연부하개폐기 (1993. 5. 22)
 3. 국제품질보증인증 : ISO 9002(가스개폐기, COS) - 94년 8월 인증획득 (미국 ITS)
 4. 사업 전환
 - 1) 중소기업 사업전환 계획 승인 : 1991. 11. 5
 - 2) 승인관서 : 중소기업진흥공단
 - 3) 전환목적
 - 노동집약적 제품생산 탈피
 - 기술집약적 장치, 기기류 제품으로 전환
 - 신제품 개발
 - 4) 전환품목
 - 철구류 → 개폐장치류
 5. 산업포장수상 : 1990. 3. 21 (제17회 상공인의 날 대표이사 임도수 수상)
 6. 부설연구소 설립 : 1991. 5. 30 (신제품 개발에 박차)
 7. 병역특례업체 선정 : 1991. 12.
 8. 직업훈련원 승인 (전기용접부분) : 1992. 5.
- 전선퓨즈 : 일본에 수출계약
- 중전기류 : 인도네시아등 동남아 시장개척중